

주일가정예배

[삼위일체/환경주일]

2022년 6월 12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84:5-7)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조화롭게 살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죄악 된 욕망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망가트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부디 인간만을 위한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구하고 찾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오니 탐욕을 버리고 어려운 이웃과 모든 생명의 신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78장** **다같이**

1.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2. 해지고 황혼 짓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3.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묵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 주재 성부 하나님
아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고리도후서 3장 13~16절 인도자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설 교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242장 다같이

1.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2.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볼 때에 모든 괴롭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3.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4.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5.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 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후렴) 거리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소그룹과 사역들을 통해 영성의 깊이를 더하시고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차별금지법 등의 성경과 반대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소서
3.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 사회 계층,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는 화해의 주주개 되게 하옵소서.
3. 헌금안내

※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

고린도후서 3:13-16

알리스터 맥그래스(1953~현재)는 청소년 시절 무신론에 심취했으나 과학사와 과학철학을 공부하는 동안,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치열한 지적 탐구 끝에 기독교로 회심했다. 그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과학에 과학으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신학자다. 그는 『삶을 위한 신학』(Mere Theology)이라는 책을 통해, 신앙은 관계의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반면, 신학은 지성의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표현했다. 신앙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신학이다. 물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에는 계시와 이성이 있다. 계시는 인간의 이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보여주고, 그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을 맛보게 해 준다. 이성是我们을 어느 정도까지 데려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길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고 보았다. 신학은 분별력, 상상력, 지도, 해석의 틀, 바뀐 세계관을 제공한다. ▶신학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킨다. 아이리스 머독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항상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 눈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장막이 제거되고 우리의 눈은 치유되어야 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눈을 치유해야 그대로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신학을 통해 관점이 변하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다. 우리는 기독교 교리라는 프리즘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게 된다. ▶고후 3:13~16에서 ‘수건’이 6번 나온다. 구약에 심취한 자들이 수건이 덮인 자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구약의 율법조차도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수건이 벗겨져야 한다. 자연과학자가 주목해야 할 교훈이다. ▶맥그래스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과학과 종교(신앙, 신학)는 대립 배치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相補的)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자연은 해석되어야 하는 존재다. 기독교 신앙은 자연을 더 멀리, 더 깊이 보게 해준다. 자연에는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흔적’이 점점이 박혀 있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것들이 빛나며, 하나님의 상징들이 아로새겨 있음을 알아야 한다. 칼뱅은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고 말했다. 기독교 신앙은 탁월한 안경을 제공하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여 더 풍성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해 준다.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과학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학문이라면, 신학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과학이 실재에 대해 제공하는 부분적인 이야기 이상의 큰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큰 그림을 먼저 보아야 부분 부분을 제대로 이해한다. 신앙과 신학이 그 큰 그림을 제공한다. 기독교가 무신론보다 현실에 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복음은 지성을 배척하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이 신앙을 통해 조명되고 활기를 얻어 자연적 한계를 넘어서게 해 준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은 씨앗을 만드셨고 적절한 때에 자라서 성장하게 하셨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심으신 인과관계로서, 나중에 나타나거나 진화할 수 있다. 창조가 이루는 발전은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에 종속된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형성해 나가신다. 신학은 우리 일상생활을 더 넓은 관점으로 조망하는 식으로 현실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전에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적이었던 세상이 이제 더 큰 것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